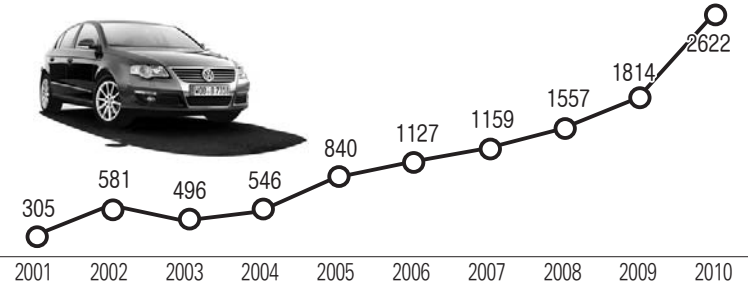


경제

광주·전남 수입차 '쾌속질주'

작년 2622대 등록...10년 새 859% 신장 폭스바겐 1위...BMW·벤츠·혼다 뒤이어

■ 광주·전남지역 수입차 신규등록대수 추이 (단위:대수)



가운데 브랜드별로는 폭스바겐이 238대로 BMW(185대)를 큰 차이로 따돌리며 정상에 차지했다. 다음으로 메르세데스-벤츠(162대), 혼다(153대), 아우디(141대), 도요타(88대), 인피니티(76대), 포드(73대), 볼보(53대), 쉐보레(51대) 순이었다.

수입차업계는 중형 수입차가 대거 출시되는 등 종류가 다양해졌고, 국산차와의 가격차이도 줄면서 수입차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수입차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개선된데다, 업체간 판권 경쟁도 한몫했다.

한편 전국 수입차 월간 판매대수도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1만대를 넘어섰다. 3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7102대)보다 44.9% 증가한 1만290대를 기록했다. 1분기(1~3월) 누적 대수도 2만5719대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9917대) 대비 29.1% 늘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2982대로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메르세데스-벤츠(1712대), 폭스바겐(888대), 아우디(857대), 도요타(503대)가 뒤를 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종류와 할인된 가격을 앞세운 수입차 인기가 치솟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수입차 시장은 지난 10년 사이 무려 8.6배나 성장했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276대(광주 165대, 전남 111)로, 전월인 2월(176대)보다 100대 증가해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64대에 비해 68.3%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1~3월) 누적 판매대수도 67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0대보다 214대(46.5%)나 많이 판매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수입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사이 무려 859%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305대(광주 268대, 전남 37대) 규모였던 광주·전남 수입차 시장은 2002년 581대(494대, 87대), 2003년 496대(331대, 165대), 2004년 546대(346대, 200대), 2005년 840대(551대, 289대), 2006년 1127대(742대, 385대)로 1987년 자동차시장 개방 이후 20년만에 1000대를 돌파했다. 이후 성장세는 더 커져 2007년 1159대(690대, 469대), 2008년 1557대(907대, 650대), 2009년 1814대(1019대, 795대), 2010년 2622대(1380대, 1242대)로 1000대 돌파 4년만에 2000대를 훌쩍 넘겼다. 이같은 성장세로 보면 올해는 3000대가 넘는 전망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등록대수 1380대



광주삼성전자 '컬렉션 냉장고' 출시 냉동·냉장 기능 취향에 따라 선택

삼성전자는 5일 광주사업장에서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등 기능이 서로 다른 냉장고를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해 패키지로 만드는 '컬렉션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를 1대씩 따로 살 수도 있지만 냉동고·냉장고, 냉동고·김치냉장고, 냉장고·김치냉장고 등 원하는 기능대로 2종 또는 3종 구성 등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다. 3개 제품(냉장고 340ℓ, 냉동·김치냉장고 280ℓ)을 모두 묶어 사용하면 900ℓ 까지 음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다.

냉동고는 '아이스 메이커'가 있어 손잡이만 돌리면 열린 열음을 바로 꺼낼 수 있고, 냉장고는 식품마다 최적의 보관 습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타워 LED라이트를 적용해 구석의 식품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컬렉션 시리즈는 양문형 냉장고와 비교해 폭이 30cm, 깊이가 20cm가량 적은 슬림 디자인을 적용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냉장고 89만원, 냉동고 99만원, 김치냉장고 129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베트남 300억 주상복합 금호건설 단독 수주



금호건설(대표이사 기욱)은 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2700만 달러(약 300억원)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건물인 '시티플라자(C. T Plaza Nguyen Dinh Chieu)'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조갑도)

베트남 유통 대기업인 C.T그룹 소속 부동산개발회사(C.T Phung Nam JSC)가 발주한 '시티플라자'는 호찌민의 핵심지역 1군에 인접한 대지면적 4269㎡, 연면적 5만3955㎡,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 및 상업시설 1개동이다.

공사기간은 총 28개월이며, 금호건설이 단독 시공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시티플라자는 호찌민 중심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할뿐 아니라 각종 대사관과 외국인학교, 생활편의시설 등이 가까운 우수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차, 고유가 덕봤네

1분기 판매 비중 20% 육박... 1992년래 최고치

고유가와 신차 출시로 몰들어 경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승용차 중 경차 판매 비중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 판매량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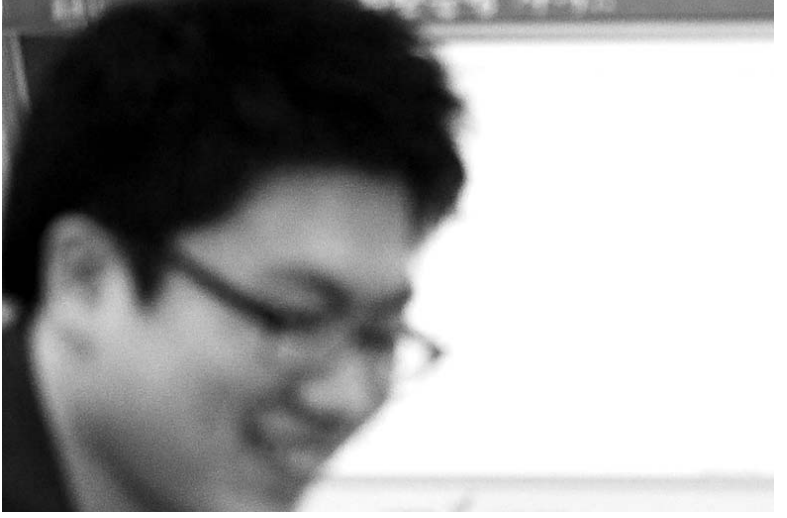
5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에서 판매된 경차는 총 4만534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나 늘었다. 이는 대우 티코가 경차 시장의 문을 연 1992년 이후 최고 실적이다.

1분기 국내 시장에서 승용차 중 경차 판매 비중은 19.8%로, 2008년(18.1%), 2009년(15.2%), 2010년(17.1%) 등으로 최근 3년간 크게 상승했

다. 특히 지난 2월 경차 비중은 23.2%로 IMF 구제금융 시기인 1999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1만3109대가 팔렸던 경차는 2월 1만5882대, 3월에는 1만6354대로 매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신형 모닝은 2월 1만2294대, 3월 1만1502대 등 2개월 연속 1만대를 돌파하며, 3개월간 3만2011대로 작년 동기 대비 25.5%나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국내 시장에서 경차 판매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16만579대)보다 2만대 가량 많은 18만여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코스피 또 날았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56P(0.69%) 오른 2,130.43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3.60원 오른 1,090.20원에 마감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나라빚 392조

전년보다 14조 줄어... 국민 1인당 804만원 끌

지난해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예초 전망보다 14조4000억원이 줄었다. 국민 1인당 나라빚은 804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이 늘었지만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407조20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3.5%로 전년(33.8%)보다 0.3%포인트가 줄었고 예초 전망(36.1%)보다는 2.6%포인트가 축소됐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나라빚은 80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66만원 가량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37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7000억

원이 늘었지만 예산 대비로는 20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19조원으로 예산보다 6조4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기준) 비율도 31.9%로 전망(34.9%)보다 3%포인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은 총수입 270조9000억원, 총지출 254조2000억원, 수지 16조7000억원 흑자로, 전년보다 34조3000억원 개선됐고, 예산 대비로는 18조7000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1.4%로 예산(-0.2%) 편성 때보다 1.6%포인트가 나아졌다. 예상보다 나아진 것은 수입이 8조6000억원이 늘어난 반면 지출은 10조1000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회장에 양보승씨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5일 양보승(58·경서산업 대표이사) 광주·전남아산클럽동 조합 이사장이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 회장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지역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의 대외활동을 담당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 2,130.43 (+14.56)

코스닥지수
▲ 537.66 (+2.76)

금리 (국고채 3년)
▲ 3.69% (+0.01)

원·달러 환율
▲ 1,090.20원 (+3.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전통시장 빈 점포 편의 시설로 활용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특별법'을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 안에 빈 점포를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할 경우 점포 임대나 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정부가 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원적외선 방사 웰빙기 출시

웰빙기 1대 설치로 1석 3조 효과(효도상품)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웰빙

- 조영 및 전자제품에서 방사된 원적외선은 친환경과 인체 신진대사 및 경락 순환에 탁월함.
- 학생 공부방 스텐트 조명기구에서 원적외선 방사
 - 조도 3~4%이상, 실내공기 정화
 - 몸의 컨디션 향상
 - 공부 집중력 향상
- 전기메트에 원적외선 방사로 전자파 중화 및 치료효과 탁월
- 병원 물리 치료실과 사우나실의 원적외선 기기 활용
 - 온열요법 중 가장 강한 열작용으로 어깨 뻣임과 근육 피로해소
 -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영양공급 균형유지
 - 인체 적정 수분 유지
 - 노폐물, 독소배출 촉진 및 냉해 중화
 - 광택있는 젊은 피부재생효과(피부부속 불순물, 화장품 찌꺼기 배출)

친환경 체험 웰빙

- 김치, 육류 아재, 과일등 맛과 신선도 향상(특히 김치 맛 최고)
- 전자파, 정전기, 수백파는 화회전파, 원적외선은 우회전파로 중화 작용
- 냉장고 보관 식품에서 나는 냄새억제
- 조명기기, 냉장고, 냉난방기, 컴퓨터 등 성능 및 수명 2배 이상 연장
- 어항(수족관) 속 이끼 방지, 물이 깨끗해지고 썩지 않음, 물속에 용존산소 농도가 높아짐
- TV, 컴퓨터 화질 선명도 향상

특허제품(제10-0994817호)

- ISO 9001 : 2000 인증획득

전류개선으로 화재예방 및 전기요금 절감

- 전기 저항 때문에 손실된 에너지를 유효에너지로 환원(최소 5%이상) 저탄소 녹색 성장, 온실가스 감축(전기절 고효율)
- 설치 전과 후가 동일조건 일 경우 전기요금 7~20%절감(누진율)

제품설명

- 웰빙기는 세라믹물질에 의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가 생성되어 전선내에 흡수, 전류를 타고 흐르며 전동 및 가전제품에서 방사됨.
- 웰빙기는 순수화학제품이며 무전류기기로 타기기 및 설비에 해를 주지않고 제품수명은 10년이상, 유지보수 및 설치가 간편함.

사례 : 광주지역 금호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조대부속고등학교 인성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제품용량 및 가격

- 가정용, 영업용, 아파트용, 학교용
- 가정용 9KVA 214,000원, 7KVA 300,000원, 10KVA 429,000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 4동 926-3(2층)
 직통 070-4111-6661 팩스 062-362-6661
 H. P 010-872-0094

대리점 모집중

진스토리 암 유전자검사로 암 공포에서 해방되세요!

얼마 전 우리나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암의 사망 원인의 1위이며,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암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한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 각종 발암물질로 뒤덮여 있으며 학계의 연구보고서와 각종 매스컴에서 암은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것과 후천적으로 오랜된 잘못된 식생활습관이나 각종환경에 기인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암의 공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게, 건강이 조금만 이상해도 항상 내 가족이 같이 매달려 살지만 그렇기 않은 경우엔 치료비 감당을 못하여 그만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학계에 알려진 암의 발생과정은 살펴보면 암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여러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 발암물질이나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 속 DNA가 손상을 입게 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암의 시작이다. 이런 돌연변이 세포가 늘어나면 종양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악성종양이 된다. 돌연변이가 된 세포가 증식하는 가운데서 종양이 생겨나게 되는데 돌연변이 세포가 암 덩어리가 되기까지 통상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인간의 유전자변이 분석 연구를 통해 선천적 후천적인 암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기법은 주로 대형 암 전문병원에서 고가인 300만~3000만 원으로 검사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꿈도 꿀 수 없는 검사였다.

하지만 진스토리에서는 벤처기업 다이오진이 개발 특허 등록 된 첨단기법인 암유전자분석(다이어진 CG Check: 헬장DNA 총량검사, 유전자 메틸화 검사,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및 추가 DNA 검사를 간단한 체혈만으로 일반인들이 누구나 암유전자분석검사를 통해 암 유전자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CT나 MRI 등의 현 첨단기기가 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현 기술로 1cm

의 암이 되어야 파악이 가능하여 일부 전이가 되어진 상태에서 발견 생성 초기의 암 발견으로 사전에 치유 가능케 하고 암 억제 유전자의 복구를 통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섬세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스토리 암 유전자검사를 통해 건강하다고 자신 하던 분들에게서도 선종성 용종, 미세암 또는 초기암이 발견, 제거하여 새롭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 들이 늘어 나고 있다. 이 진스토리 암유전자 검사에 이미 암으로 형성 된 것을 발견하기 보다는 암으로 형성 되기 전의 상태를 파악 해 주어 암을 사전에 차단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암환자가 계시면 분, 암 치료 후 재발을 두려워하시는 분, 환경호르몬에 노출 되신 분,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 용종이나 선종을 제거하신 분들은 꼭 받아 보아야 할 검사기 되었다.

또한, 자녀들의 건강 과 부모님께 건강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높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인들의 종합건강과 아울러 필수적인 암 유전자 검사로 자리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스토리에서는 이 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컨설팅 할 GSC(진스토리 컨설턴트)도 모집한다.

(주)진스토리 | 문의전화 : 062-385-2212~3 | www.genestory.kr
 광주광역시 서구 마곡동 172-1 3층